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17>왕벚나무 자생지 확인 전국 '부종휴 효과

제1부/제주식물 세계화 100년 <16>-한라산 박사 부종휴의 발자취를 찾아(2)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4. 06.30. 00:00:00



1960년대 진해벚꽃되살리기 대대적 전개

주식물 1천8백여종 주장후 학계정설로

흰진달래·선인장 자생지 등 전국적 관심

경남 진해시는 벚꽃축제의 대명사로 불릴만큼 벚나무로 잘 알려진 고장이다. 그러나 진해 왕벚나무가 제주의 부종휴가 없었더라면 모두 잘려져나갈뻔 했던 일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사연은 이렇다. 일본은 우리나라 강점기 진해에 군항을 건설하면서 도시미화용으로 벚나무를 심기 시작했으며, 약 1만평의 농지에는 '벚꽃장'이라는 벚나무 단지를 만들어 관광휴식처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광복후 진해시민들은 벚나무를 일본의 국화라 하여 베기 시작해 시가지의 벚나무가 모두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1960년대초의 일이다.

이때 제주출신의 부종휴와 국립과학원장 박만규박사가 왕벚나무자생지에 관한 낭보를 전한다. 1962년 제주에서 왕벚나무 자생지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였다. 왕벚나무 자생지 발견은 전국에 큰 반향을 몰고왔다. 이는 일본과 한국식물학계에 지속돼온 왕벚나무의 원산지 논란에 쐐기를 박는 상징성 때문이었다.

왕벚나무가 거의 잘려져나갈 즈음 진해시가 '벚꽃진해 되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것은 다름아닌 '부종휴 효과'였다. 진해시청 홈페이지에도 이런 역사가 소개되고 있다. '1962년 식물학자(박만규, 부종휴)에 의하여 진해에 가장 많았던 왕벚나무의 원산지가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 제주도임이 밝혀졌으며 이후 시민들은 벚나무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되어 5·16 이후 벚꽃진해를 되살리는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종휴가 우리나라 왕벚나무의 역사를 새로 쓴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부종휴는 지질, 동굴, 고고학, 식물 등 다방면에 걸쳐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열을 쏟았는데 특히 제주식물연구에 심취했다. 국립산림과학원 김찬수 박사는 "부종휴선생은 다방면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박물학자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제주식물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고 말한다. 김박사는 70년대 후반 부종휴를 따라 식물채집을 다녔다.

부종휴를 가장 적절하게 대변하는 것은 식물학자다. 한라산을 3백여회나 오르내렸던 그는 수많은 미기록식물과 자생지를 찾아냈다. 한라산에 분포하는 식물이 미발표분을 포함해 1천8백여 종에 이른다는 보고는 부종휴를 통해 제기된 후 거의 정설이 되다시피 했다. 그 이전에 알려진 1천4백종보다 무려 4백종이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부종휴는 '제주도'지 제12호(1963)에서 "한라산은 그 식물의 수로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의 어느 산보다도 가장 많은 1천8백에 가까운 식물이 난, 온, 한대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할만 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1973년 제주도가 펴낸 '제주도문화재 및 유적 종합조사보고서'에서도 부종휴는 "제주도의 식물종수는 대략 1천8백여종으로 우리나라 식물의 반수는 제주지역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그가 채집한 식물표본 상당수가 서울대에 소장돼 있다. 서울대 박종욱교수(생명과학부)는 최근 표본 중 일부 자료를 본보에 제공했다.

제주도가 세계에서 유일한 왕벚나무 자생지를 잇따라 발견한 사람도 부종휴다. 천연기념물(159호)로 지정된 제주시 봉개동 5·16도로변 왕벚나무자생지를 비롯해 남제주군 남원읍 지경수악계곡 서남쪽 왕벚나무자생지도 부종휴를 통해 알려졌다. 이때가 1962년이다. 당시 조사에는 국립과학원장 박만규박사를 단장으로 한 한라산식물조사단에 의해 공식화됐다. 부종휴는 한 보고서에서 "1962년 이후 박만규교수와 필자는 계속 한라산에서 왕벚나무의 자생지를 찾아왔고 원산지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뿐이 아니다. 한림읍 월령의 선인장 자생지 발견, 흙붉은오름에서 찾은 흰진달래 등 제주의 식물들이 부종휴를 통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오름나그네' 김종철은 훗날 흰진달래를 발견하고 기뻐 날뛰는 부종휴를 그리워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사진작가 서재철씨는 "부선생은 교단에 서기도 했으나 산에 다니고 싶어 시간만 나면 한라산에 올라 식물들과 얘기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과는 동떨어진 인생을 살았다. 경제적으로도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

부종휴가 항상 가지고 다녔던 작은 식물도감 빈 구석들은 그가 산야에서 찾은 식물들로 채워졌다. 취재진은 부종휴가 생전에 가지고 다녔던 낡은 식물도감과 채집품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유품은 부종휴의 형 부정휴씨(2003년 작고)가 일군 구좌읍 송당 소재 '부성원'의 낡은 책꽂이 귀퉁이에 초라하게 꽂혀 있다.

[기인 부종휴]산오르면 1주일 예사 간첩오인도

산 그리우면 移職... '1년초' 별명

부종휴의 선친 부상규옹(1932년 작고)은 1920년대부터 30년대 초까지 제주에서 인술을 펼친 현대의학의 선각자였다. 의료환경이 열악했던 1926년에 그는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에 양의원을 개원한 뒤 구좌읍을 중심으로 제주 동부지역에 명의로 이름을 떨쳤다. 이후 마을사람들은

공로비를 세워 그의 공적을 기렸다.

부용은 슬하에 3남3녀를 두었는데 부종휴는 차남이다. 부종휴(생물)를 비롯해 장남 정휴(2003년 작고, 생물) 3남 도휴(영어)씨 모두 교편을 잡았다. 유족들은 자연에 대한 부종휴의 학구열도 일찌감치 선진 의술에 접했던 선친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부종휴가 식물에 심취한 것은 진주사범학교 재학시절 일본인 스승 요코야마(橫山)를 만나면서다. 생물담당 교사이던 그는 당시 한국의 식물에 관해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제자인 부종휴가 제주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자 식물연구를 적극 권유하게 된다.

생전 부종휴는 요코야마가 당시 그에게 들려준 얘기를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제주는 식물의 보고일세. 제주도식물만 연구해도 세계적인 권위자가 될 수 있네.” 스승 요코야마의 이 한마디는 부종휴가 평생을 식물채집과 연구에 몰두하게 하는 결정적 모티브를 주었다.

45년 3월 졸업과 동시에 북군 김녕국민학교로 부임하면서 한라산 식물연구에 본격 매진하게 된다. 이어 부임한 김녕중학교와 초등교원 양성소, 제주농업학교, 신성여고, 제주사범학교에 재직하는 동안에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한라산을 오르내렸다.

한라산에 미쳐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못해 이곳저곳을 방랑했으며 한번 산에 오르면 1주일 넘게 돌아오지 않을 때가 허다했다. 제주대 김문홍교수는 “부산대와 서울대에서 연구원 생활을 오래 했더라면 교수로서 명성을 날렸을 텐데 부선생은 이를 마다하고 이내 한라산으로 되돌아 오곤 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1년초(一年草)’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부종휴 자신도 한 인터뷰에서 1948년 부산 해동중에서 교편을 잡을 때의 일을 떠올리며 “한라산을 잊지못해 이내 되돌아오자마자 백록담에 올라 10일 동안 애인을 어루만지듯 쓰다듬으며 회포를 풀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때론 칩뿌리와 열매로 연명하며 한라산에 기거했다.

세상이 어지럽고 암울했던 시기에 한라산을 혼자 제집드나들듯 했던 부종휴는 기인행각의 일단을 보여준다.

원로산악인 안흥찬옹은 “4·3때에는 한라산 입산이 금지됐는데도 무작정 산에 오르는 부종휴 때문에 경찰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때로는 경찰이 신변보호를 위해 따라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69년 10월에는 조천리 산속에서 식물채집을 하다가 간첩으로 오인받아 예비군에게 5시간 동안 포위됐다가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후에야 풀어줬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